

# 드레스덴, 음악의 역사를 따라서

글 | 송현민 (음악평론가)

드레스덴을 관통하는 엘베 강변을 거닐던 괴테(1749-1832)는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된 나머지 “이곳은 유럽의 테라스”라며 혀를 내둘렀다. 같은 엘베강의 물줄기를 지녔지만 엘브 필하모니 홀이 들어선 함부르크와는 전혀 다른, 고전적이며 고즈넉한 분위기다. 지금도 드레스덴의 명물 젼퍼 오페에서 공연 중 긴 인터미션이 주어지면 걸음 이 빠른 이들이 그 ‘테라스’에 잠깐 들려 도시의 야경과 공기를 한 흡담아간다.

철학자 헤르더(1744-1803)는 둘러본 드레스덴을 ‘독일의 피렌체’로 정의했다. 이탈리아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심장부라면, 드레스덴은 바로크 건축이 꽃 핀 도시. 츠빙거 궁전과 성모교회는 그 화려한 역사를 대변해준다.

## 바흐로 인해 잊고 있던 쉬츠

오늘날 독일에는 16개의 주가 있다. 그중 뒤셀도르프, 본, 슈투트가르트, 쾰른 등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이곳들은 전형적인 서독의 도시들이다.

보다 ‘심오한 독일’과 그 ‘깊이감’을 느끼기 위해선 동쪽으로 가야한다. 그곳에는 작센주(Saxony)가 있다. 독일문화의 찬란한 보고(寶庫)로 통하는 곳이다. 작센에도 주요 도시가 있다. 쾨니히슈타트는 과거 작센왕국의 수도였다. 과거에 자유무역도시로 발전하여 시민문화를 꽃피운 라이프치히는 바흐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성지와도 같다. 드레스덴은 현재 작센 주정부의 소재지. 체코와 경계가 맞닿은 동쪽에 치우쳐 있지만,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대한 영토를 상실하기 전에는 독일의 중심지와도 같았다.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젼퍼 오페 등의 전통과 유산이 있는 이곳이 서양음악사에 처음 등장할 때 함께 거론되는 작곡가는 하인리히 쉬츠(Heinrich Schütz, 1585-1672)이다. 우리에게는 꽤나 낯설다. 하지만 유럽에서 쉬츠는 바흐(1685-1750) 이전에 독일이 낳은 최고의 작곡가로 손꼽힌다. 쉬츠는 1615년부터 줄곧

드레스덴 궁정에서 활동하다 사망했다. 츠빙거 궁전을 감싼 숲과 공원을 한적히 걷다 보면 고요히 서 있는 쉬츠의 기념비가 나온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성모교회(Frauenkirche)에 쉬츠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도 얼마 없다.

## 18세기 음악의 중심지

쉬츠의 음악적 유산은 아우구스트 2세(재위 1694-1733)를 만나 꽃피웠다. 그는 ‘강건왕’으로 폴란드를 통치했지만, 고국인 작센에선 ‘바로크의 왕’이었다. 그는 1710-1718년에 츠빙거 궁전을 지었고, ‘강건’한 음악 후원으로 드레스덴 궁중음악을 발전시켰다. 아우구스트 3세도 그의 뜻을 이어갔다.

이들은 오페라극장을 짓고, 우수한 음악가를 불러들였고, 젊은 음악가들을 이탈리아·오스트리아·프랑스로 유학 보냈다. 크반츠(1697-1773), 하세(1699-1783), 하이니헨(1683-1729), 피젠델(1687-1755) 등이 이러한 자양분을 통해 성장하며 음악의 젼줄을 드레스덴에 남겼다. 비발디(1678-1741)와 텔레만(1681-1767)도 이곳을 거쳐 갔다. 아우구스트 2세는 오늘날 구·신시가지를 잇는 다리 위에 황금 동상으로 서 있다.

영광의 순간만 겪은 것은 아니었다. 쉐레지엔 전쟁(1740-1745)과 나폴레옹(1769-1821)의 팽창 정책 등으로 인해 침체기도 겪었다. 하지만 드레스덴은 이탈리아 기악음악을 중부와 북부 독일로 소개한 창병기지였으며, 이를 토대로 19세기 낭만주의 기악음악의 발전을 이룩한 중심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음악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 독일의 역사관이 정립되던 19세기에 역사 기술(記述)은 독일 민족주의적 관점이 최우선시 되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문화를 깊숙이 들이마셨던 드레스덴의 음악적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 라이프치히와 바흐를 중심으로 독일의 음악사가 서술된 이유이기도 하다.

